

부

彼岸에 가려 말고 더러운 세상 함께 살기

Books

공무도하
김훈 지음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김훈 (61·사진)이 우리 시대의 절망과 희망을 노래한 신작 장편소설 '공무도하 (公無渡河)'를 폴냈다.



그는 평소 고조선의 시가 '공무도하'를 두고 "강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더러운 세상을 함께 살자는 노래"라고 해석해 왔는데 이번 소설은 이러한 그의 세계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비루함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작품에 모아놨다"면서 "하지만 비천한 현실에서 도망갈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같이 그렸다"고 말했다.

소설에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인 문정수와 '해망(海望)'이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얹힌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문정수가 야근 후 그날 겪은 일을 중얼거리듯 늘어놓는 상대인 출판사 편집자 노숙희, 노숙연 대 활동을 하다 불참한 후 집행부 수배자들의 은신처를 자백하고 풀려난 장철수, 화재현장에서 귀금속을 빼돌리고 퇴직한 소방관 박옥출,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에게 맡긴 어린 아들이 개에 물려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버린 오금자 등이 그들이다.

김 씨는 이 중 문정수의 눈을 통해 저수지 봉괴로 인한 수해, 의붓여동생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50대 아버지를 아들이 살해한 사건, 기르던 개에게 죽은 소년의 일, 크레인에 치여 죽은 여고생 사건 등 일간지 사회면에 날 만한 일들을 기사 써내려가듯 단문으로 나열했다.

그리고 단문 형식으로 구성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새만금 간척 매한가지 미군 폭격훈련장, 미군 장갑차 사건, 다문화 가정 등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다양한 사회문제와 닮아 있다.

또 이 소설의 등장인물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들에게는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윤리와 정의를 포함한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김 씨는 이렇듯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부대끼고, 호흡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그만의 간결한 문체로 그려냈다. 지독히 비루하고 치사하고 던적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불편하기만 한 소설에서도 작가는 한 가닥 가능성을 열어둔다. 서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오금자, 장철수, 후에 등이 집주인이 된 빙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함께 살아나갈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진리를 슬쩍 말해주는 듯하다.

그의 역사소설보다는 짧고 간결해 쉽게 읽히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마음속에 남는 비장함은 전자 못지 않다.

지난 5월부터 9월 25일까지 포털 네이버에 5개월 동안 연재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것이다.

〈문학동네·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angju.co.kr



광주 출신 소설가가 쓴

600일간의 인도 여행기

상처 받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땅, 이유 없이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자애로운 땅인 인도. 광주 출신 소설가 이씨가 인도로 떠난 600일간의 여행기를 통해 낯선 땅의 맨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울지마라, 눈물이 네 몸을 녹일 것이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딸 아이 하나님에 데리고 훌쩍 '동경의 땅' 인도로 떠나 그곳 깔카타 대학 언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1년 반 동안 생활했다.

이 씨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인도의 삶과 사랑, 사람 이야기를 '여행자'의 시각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면하고 부딪쳤던 '생활자'로서의 시선으로 진솔하고 솔직하게 들려준다.

낯선 길로의 여행을 인도하는 천연색의 사진들은 현장감을 더한다.

〈랜덤하우스·1만2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angju.co.kr

악의 추억

이정명 지음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외국발(영) 심리 스릴러 소설을 읽는 느낌도 듦다. 어딘지 익숙한 듯하지만 또 낯설기도 하다.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이 등장했다. 문근영·박신연 주연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화제가 된 '바람의 회화'의 작가 이정명이 2년만에 펴낸 소설 '악의 추억'은 연쇄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추리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언제나 안개가 자욱한 도시, 그래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가상의 도시 침니랜드와 뉴아일랜드이다. 그는 현

두개의 안개 도시... 세명의 피살자...

첫번째 살인이 일어나는 곳은 침니랜드와 뉴아일랜드 사이를 잇는 케이블카 안. 그곳에서 입가에 웃음을 띤 채 살해당한 금발 미녀의 시체가 발견된다. 곧 이어 헬리 반장을 중심으로 정년을 앞둔 카슨, 패트릭 등으로 수사팀이 꾸려진다. 여기에 합류한 이는 현재 정지 상태인 매티오. 그는 심리분석관으로 참여한 라일리의 심리 상담을 받으며 동물적인 감각으로 수사에 참여한다.

계속되는 연쇄 살인 사건에 이어 죽은 자와 관련된 이들이 또 다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사건을 접점 미궁으로 빠지고 여기에 라일리의 아픈 과거까지 드러나면서 일은 복잡하게 꼬인다.

소설의 재미를 살리는 인물은 몇년전 매티오가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데니스 코헨의 존재다. 그는 현

재 전개되는 연쇄살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과연 진짜 그는 죽었는가.

저자는 심리학과 뇌과학, 범죄심리학 등 다양한 이론들을 소설 속에 녹여냈다.

일단 책은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렵다. 조금은 익숙한 전개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은 반전은 무릎을 치게하며 뒷 이야기가 궁금해 책장을 자꾸 넘기게 된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뿐만 아니라 밝혀주지 않는 결말에 대한 호기심은 갈릴 수 있다.

정식 출간 전 교보문고 등 온라인에서 모집한 리뷰와 현지 경찰, 뇌과학자 등에게 가평집본 1천부를 배포, 사전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밀린하우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종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근린시설/주택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면적/건물	김경자	최자기	비고
부동산 대1470, 건2473	37억6천	19억2천	5층교회, 학원	
부동산 대740, 건318	58억8천	18억3천	7층 빌딩	
주택 대1191, 건1591	14억	5억	빌딩상	
임대 대802, 건1063	17억6천	7억8천	3층상가/간판	
화물창 대6265, 건1017	65억9천	19억2천	4층 물류방	
화물창 대2171, 건110	48억7천	21억8천	단층상가/상점	
주택 대776, 건321	31억6천	11억3천	7층 빌딩	
임대 대4500, 건4009	64억6천	28억9천	5층 물류방	
임대 대1002, 건1084	101억	45억	극장	
구로동 대1048, 건9995	36억8천	20억	오피스텔	
임대 대3900, 건11023	112억	32억	7층 물류방	
개인동 대215, 건407	3억5천	2억8천	4층 원룸	
개인동 대238, 건534	4억4천	3억7천	4층 원룸	
임대 대161, 건128	1억8천	1억3천	3층 원룸	
임대 대636, 건1134	9억7천	3억4천	4층 빌딩	

아파트/빌라 택경수부장 010-4640-2142

주택/재개발 경아사 010-5879-0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대표이사 010-9611-2817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자 최자기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자 최자기 비고

주택 대124, 건155

주택 대125, 건1327

화물창 대175, 건3261

화물창 대699, 건812

화물창 대558, 건1000

화물창 대533, 건496

주택 대37, 건102

주택 대2042, 건2798

임대 대102, 건1388

임대 대324, 건1408

주택 대1048, 건9955

주택 대307, 건197

화물창 대3900, 건11023

화물창 대165, 건1040

개인동 대215, 건407

개인동 대84, 건107

개인동 대238, 건534

개인동 대116, 건128

임대 대636, 건1134

임대 대448, 건87

주택 대1470, 건2473

주택 대124, 건155

화물창 대699, 건812

화물창 대65, 건156

주택 대1048, 건9955

주택 대104, 건102

화물창 대3900, 건11023

화물창 대165, 건1040

개인동 대215, 건407

개인동 대84, 건107

개인동 대238, 건534

개인동 대116, 건128

임대 대636, 건1134

임대 대448, 건87

주택 대1470, 건2473

주택 대124, 건155

화물창 대699, 건812

화물창 대65, 건156

주택 대1048, 건9955

주택 대104, 건102

화물창 대3900, 건11023

화물창 대165, 건1040

개인동 대215, 건407

개인동 대84, 건107

개인동 대238, 건534

개인동 대116, 건128

임대 대636, 건1134

임대 대448, 건87

주택 대1470, 건2473

주택 대124, 건155

화물창 대699, 건812

화물창 대65, 건156

주택 대1048, 건9955

주택 대104, 건102

화물창 대3900, 건11023

화물창 대165, 건1040

개인동 대215, 건407

개인동 대84, 건107

개인동 대238, 건534

개인동 대116, 건128